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봉초운** · 정윤희** · 홍세희***

초 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행위자 효과 및 상대자 효과,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어머니의 결혼 상태가 조사 기간인 5년간 기혼에 해당하는 가구의 어머니와 자녀 1,192쌍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증가하였다. 셋째,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는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수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ehong@korea.ac.kr

I. 서 론

1990년대 이후, 외국 노동력 이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진입하였다.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수가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행정자치부, 2013).

하지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으며, 또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사회적·재정적 지원 부족을 경험한다(Hovey & Magana, 2002). 또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64.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2016). 국내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사회적 지원과 연구적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해 왔으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부모 혹은 자녀의 변수 중 하나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정옥희, 2013).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경험하는 부적응의 문제는 가족 체계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가 자기 자신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영향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머니 요인은 아동발달 측면에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김상용, 2009; 박애선, 2013; 정옥희, 2013). 부모와 자녀가 각자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호 연관적인 맥락 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PIM이란 분석 대상이 되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Cook & Kenny, 2005), 다문화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의 대처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과 개입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mulative stress)란, 문화적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Berry, 1997),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문화적응의 과정에 관여한다(Berry, 2003). 이는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이다(Thomas & Choi, 2006).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Hovey와 Magana(2002)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을 경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언어발달지체, 학교 수업 부적응, 폭력성,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등을 경험한다(보건복지부,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문제로 대두되었다(Berry, 1997; Hovey & Magana, 2002). 특히 해외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밝혔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개인의 경험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Tartakovsky,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초창기에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점차 감소하는 형태(Ying, 2005),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Tartakovsky, 2007)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 연구는 부족하다. 인효연(2017)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가족의지지,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를 연구한 바 있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를 추정하거나 변화 형태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추가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환경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것으로(Rosenberg, 1985),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자 개인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이다(심미영, 정승현, 황순금, 2013).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권복순, 2009),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녀들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김경은, 2009).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강한 충동성과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데(Adams, Overholser & Lehnert, 1994),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충동적 행동을 조절해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를 경험한다. Berry 외 (1987)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심리적 요인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스스로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상호연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현경, 이승연, 2010).

한편, 자아존중감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발달적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aldwin & Hoffman, 2002).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사춘기의 시작, 입학 등으로 인해 변화한다고 밝혔다(정익중, 2007).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해외의 연구들은 성인기 역시 자아존중감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Orth, Trzesniewski & Robinson, 2010).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Greene & Way, 2005).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조언, 도움, 행동을 의미하며(Gottlieb, 1983), 학교의 요구에 대한 아동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Ladd & Kochenderfer, 1996),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정지민, 2015).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졌다(Choi, 2001). 즉,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완화시키며 개인의 안녕을 돕는다는 점에서(Hyun & Kim, 2012),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정선진, 김진숙, 2012).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Major와 O'Brien(2005)은 다문화가정과 비(非)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Yeh & Inose, 2003).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지지는 크게 가족, 교사,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심미영 외, 2013).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윤경, 이옥경, 2001; 유봉애, 옥경희, 2013).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혹은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중 하나를 별도로 연구하였으며 세 변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행위자 효과 및 상대자 효과는 유의한가?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1차년도(2011년)부터 5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MAPS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어머니)를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모의 경우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자료로 MAPS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PS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변수의 변화 형태와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MAPS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시점으로 조사하여 종단 분석에 적합하다. 셋째,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고려하여 거주 형태를 통제하고 자 부모(어머니)의 현재 결혼 상태가 조사 기간인 5년 동안 기혼인 쌍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어머니와 자녀 1,192쌍이다.

2. 측정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한 문항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8문항(예: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됨)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10문항(예: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보통이다(3점)’이 제외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변수는 각 년도 별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5개 년도에서 .843에서 .885, .737에서 .805의 범위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항 중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9문항(예: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중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14문항(예: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변수는 각 년도 별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일부 문항을 역처리하여 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5개 년도에서 .791에서 .813, .889에서 .913의 범위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지역사회로 나뉜다. 가족의 지지는 학생의 가족에 관한 7개 문항(예: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지는 학교친구들에 대한 5개 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림)에 대한 응답을, 교사의 지지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5개 문항(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지역의 지지는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6개 질문(예: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4개의 변수는 잠재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1차 년도 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지지의 1차 년도 응답값을 사용했다. 친구의 지지와 지역사회의 지지는 일부 문항을 역처리하여 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1차 년도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지역사회의 지지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901, .883, .683, .692로 나타났다.

4) 통제 변수

통제 변수로는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한국어능력,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소득은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을 로그 변환하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한국어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1,192명의 자녀 중 남성은 584명(49.0%), 여성은 608명(51.0%)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이다. APIM은 두 사람 간 관계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가정하고 양자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Cook & Kenny, 2005). 연구 대상이 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변수 간의 독립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짝 혹은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APIM은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추정한다(Cook & Kenny, 2005). 행위자 효과란, 개인의 현재 행동이 과거 행동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대자 효과란, 개인의 현재 행동이 다른 개인의 과거 행동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를 뜻한다. 두 사람 간 상대자 효과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때 양방향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APIM을 적용하였다.

커플 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의 분석은 일반적인 잠재성장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Preacher, Wichman, Maccallum & Briggs, 2008). 첫째,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반복 측정된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변화 형태를 추정한다. 둘째, 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모형에 변수를 투입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에서 추정된 분산, 즉 개인차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집단 수준에서 계산되는 ML과 달리 개별 사례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하므로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Arbuckle, 1996).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검증과 CFI, TLI, RMSEA 지수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검증에 사용되는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가설을 쉽게 기각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CFI, TLI,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 판단하며, TLI와 CFI는 .95 이상, RMSEA는 .06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또한,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적합하다(Shrout & Bolger, 2002). Bootstrapping은 이론적으로 무수히 표집하여 얻은 경험적 표집 분포를 형성한 후 신뢰구간을 통해 계수를 검증한다. 이 때 경험적 표집 분포는 표집 횟수가 무한하지 않아 편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집 횟수의 한계를 보완한 BC(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Efron & Tibshirani, 1994). BC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계수는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21.0과 Mplus 7.0을 각각 기술통계 분석과 APIM 분석에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의한 결과는 굵게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상관과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지역사회 지지를 제외한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 또한 대부분 유의했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보다 절대적인 값은 높으나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였다. 왜도와 첨도 값은 로그변환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8 미만으로 정상 분포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2	.49																					
3	.49	.53																				
4	.46	.52	.61																			
5	.45	.47	.53	.63																		
6	.17	.17	.15	.16	.15																	
7	.11	.18	.13	.16	.13	.28																
8	.09	.13	.16	.17	.10	.26	.29															
9	.05	.10	.12	.15	.12	.23	.22	.31														
10	.11	.15	.19	.18	.16	.24	.22	.26	.29													
11	-.28	-.25	-.22	-.21	-.21	-.16	-.11	-.05	-.07	-.07												
12	-.17	-.26	-.19	-.20	-.22	-.07	-.14	-.06	-.06	-.07	.50											
13	-.19	-.25	-.30	-.29	-.24	-.14	-.17	-.13	-.10	-.08	.49	.51										
14	-.16	-.25	-.24	-.31	-.29	-.09	-.14	-.07	-.10	-.09	.45	.51	.54									
15	-.17	-.24	-.21	-.27	-.35	-.12	-.11	-.08	-.05	-.04	.39	.41	.44	.55								
16	-.07	-.02	-.04	-.07	-.08	-.16	-.12	-.05	-.12	-.07	.18	.13	.15	.14	.17							
17	-.05	-.02	-.04	-.04	-.04	-.11	-.24	-.09	-.10	-.07	.10	.12	.14	.09	.11	.43						
18	-.08	-.05	-.14	-.13	-.10	-.15	-.21	-.21	-.19	-.13	.09	.12	.20	.14	.18	.33	.42					
19	-.05	-.03	-.06	-.10	-.09	-.12	-.16	-.13	-.27	-.15	.08	.10	.14	.16	.15	.34	.39	.46				
20	-.08	-.10	-.11	-.13	-.12	-.13	-.18	-.14	-.21	-.21	.11	.10	.16	.14	.15	.31	.32	.42	.51			
21	-.09	-.08	-.10	-.09	-.07	-.18	-.14	-.04	-.10	-.06	.18	.10	.16	.11	.11	.39	.26	.20	.16	.19		
22	-.06	-.06	-.08	-.09	-.06	-.17	-.13	-.04	-.08	-.04	.18	.13	.17	.12	.14	.41	.26	.22	.17	.18	.77	
23	-.06	-.09	-.07	-.09	-.08	-.16	-.15	-.05	-.08	-.08	.15	.12	.16	.12	.10	.40	.23	.22	.14	.20	.71	.70
24	-.05	-.07	-.09	-.07	-.06	-.14	-.11	-.01	-.09	-.06	.15	.12	.15	.08	.11	.41	.19	.21	.15	.17	.63	.64
25	-.05	-.04	-.05	-.06	-.02	-.16	-.16	-.07	-.13	-.10	.14	.11	.12	.12	.11	.47	.25	.22	.21	.22	.28	.29
26	-.07	-.02	-.07	-.07	-.02	-.10	-.08	.02	-.07	-.07	.09	.05	.09	.09	.10	.47	.25	.20	.19	.20	.27	.27
27	-.10	-.06	-.07	-.09	-.06	-.13	-.12	-.03	-.10	-.11	.10	.08	.10	.10	.09	.47	.25	.17	.19	.21	.27	.27
28	-.08	-.06	-.09	-.06	-.05	-.13	-.14	-.03	-.13	-.10	.10	.06	.06	.07	.07	.43	.23	.21	.17	.20	.30	.28
29	-.03	.02	-.03	-.04	-.02	-.10	-.11	.01	-.09	-.05	.07	.03	.05	.06	.06	.32	.17	.12	.15	.18	.22	.21
30	-.08	-.05	-.06	-.03	-.05	-.24	-.18	-.11	-.12	-.09	.11	.05	.12	.07	.10	.50	.31	.29	.22	.23	.32	.28
31	-.06	-.01	-.05	-.02	-.02	-.15	-.09	-.06	-.14	-.07	.10	.06	.10	.09	.11	.41	.23	.18	.14	.18	.26	.26
32	-.03	-.02	.01	-.04	-.03	-.19	-.14	-.06	-.12	-.10	.11	.10	.11	.08	.15	.48	.27	.23	.18	.21	.28	.27
33	-.06	-.05	.00	-.05	.00	-.15	-.10	-.09	-.07	-.11	.08	.05	.07	.04	.08	.11	.10	.09	.04	.10	.15	.12
34	-.05	-.02	.00	-.04	-.06	-.20	-.10	-.08	-.14	-.07	.10	.06	.08	.07	.08	.45	.29	.22	.18	.15	.31	.28
35	-.06	.03	.03	.01	-.03	-.03	-.01	.02	-.02	-.01	.04	-.01	.00	.04	.00	.33	.16	.12	.15	.14	.19	.18
36	-.04	.01	-.01	-.02	-.03	-.09	-.06	-.01	-.08	-.05	.10	.04	.06	.08	.06	.34	.14	.14	.17	.15	.24	.23
37	-.02	-.03	-.02	-.03	-.02	-.09	-.05	-.03	-.05	-.04	.08	.08	.09	.07	.07	-.01	.04	.03	.00	-.03	.07	.10
38	-.07	-.03	-.03	-.04	-.05	-.14	-.12	-.07	-.10	-.06	.08	.05	.07	.07	.09	.27	.15	.13	.17	.12	.21	.21
39	-.10	-.03	-.04	-.07	-.06	-.11	-.09	-.04	-.06	-.06	.10	.05	.08	.07	.08	.37	.21	.17	.15	.13	.26	.26
40	-.08	-.04	-.05	-.07	-.08	-.13	-.10	-.05	-.06	-.05	.08	.03	.03	.06	.08	.27	.16	.14	.11	.09	.21	.21
41	-.12	-.12	-.11	-.08	-.12	-.05	-.07	.03	-.01	.00	.16	.15	.13	.13	.14	.07	.07	.00	.02	.03	.07	.06
42	-.22	-.24	-.26	-.22	-.22	-.11	-.11	-.04	-.09	-.09	.27	.20	.24	.22	.18	.12	.08	.05	.04	.10	.12	.11
43	-.01	-.04	-.05	-.03	-.03	.02	.04	-.03	.00	.02	-.03	.01	.06	.03	.02	-.05	-.04	.07	.05	.06	-.01	-.04
44	.04	-.03	-.02	.01	.01	-.17	-.11	-.09	-.15	-.08	.09	.08	.06	.09	.03	.22	.11	.08	.10	.08	.13	.12

※ 1-5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1차-5차, 6-10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1차-5차,
11-15 : 부모의 자아존중감 1차-5차, 16-20 : 자녀의 자아존중감 1차-5차, 21-24 : 가족의 지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의 적용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M	SD	S	K	
																					2.58	.747	.21	-.18	
																					2.48	.716	.29	-.13	
																					2.50	.716	.16	-.26	
																					2.46	.784	.38	-.02	
																					2.42	.735	.31	-.09	
																					1.48	.375	1.28	2.14	
																					1.44	.369	1.34	2.41	
																					1.45	.368	1.39	2.42	
																					1.40	.316	1.10	.88	
																					1.45	.349	1.20	1.64	
																					3.87	.529	-.34	.07	
																					3.89	.517	-.28	-.08	
																					3.85	.515	-.14	-.19	
																					3.84	.528	-.28	.41	
																					3.80	.522	-.21	.35	
																					2.90	.465	.01	.83	
																					2.95	.466	.09	.64	
																					3.03	.456	.14	.30	
																					3.06	.466	.22	-.03	
																					3.06	.456	.26	.06	
																					3.23	.599	-.43	.34	
																					3.16	.649	-.62	.76	
																					3.24	.614	-.57	.63	
																					3.18	.708	-.61	.28	
.76																					3.26	.656	-.67	.83	
.28	.29																				2.94	.751	-.36	-.14	
.25	.29	.59																			3.11	.712	-.53	.23	
.28	.27	.69	.68																		3.18	.654	-.58	.87	
.31	.29	.63	.63	.68																	2.99	.853	-.62	-.16	
.24	.23	.50	.54	.58	.62																3.27	.677	-.85	1.26	
.31	.32	.37	.34	.33	.36	.24															2.86	.729	-.45	.24	
.26	.28	.29	.30	.30	.24	.22	.37														3.21	.681	-.79	1.22	
.30	.30	.37	.31	.35	.35	.25	.48	.43													3.34	.735	-.94	.50	
.15	.13	.18	.11	.13	.14	.12	.17	.09	.19												2.86	.764	-.46	.08	
.30	.34	.32	.32	.32	.34	.19	.51	.35	.42	.06											2.84	.816	-.38	-.30	
.18	.15	.20	.21	.22	.17	.09	.23	.15	.16	.01	.16										3.07	.747	-.58	.24	
.23	.20	.33	.28	.31	.25	.17	.22	.22	.23	.07	.19	.59									3.12	.852	-.76	-.06	
.09	.09	.08	.07	.08	.04	.05	.06	.04	.03	.19	.04	-.12	-.04								3.08	.720	-.71	.82	
.21	.22	.22	.20	.24	.23	.16	.20	.18	.19	.10	.22	.36	.39	.02							3.09	.674	-.63	1.03	
.24	.24	.32	.31	.33	.28	.21	.31	.25	.27	.09	.25	.49	.52	-.04	.57						3.03	.775	-.58	.13	
.22	.22	.25	.24	.29	.23	.27	.18	.19	.20	.05	.18	.31	.33	-.01	.50	.53					5.28	.478	3.40	36.2	
.08	.04	-.01	.01	.00	.00	-.01	.03	.05	.01	.03	.06	-.05	-.05	.02	-.00	.00	.05				3.03	.567	.22	-.36	
.12	.11	.07	.08	.11	.10	.04	.12	.04	.02	.04	.04	.07	.06	.05	.04	.04	.00	.16			.49	.500	.04	-2.0	
-.02	-.02	-.06	-.09	-.10	-.06	-.07	-.02	-.06	-.08	-.12	-.05	-.01	-.10	-.04	.06	-.01	.04	.03	-.02			3.60	.526	-.13	1.80
.12	.14	.16	.14	.14	.14	.08	.18	.11	.11	.09	.17	.12	.16	.05	.13	.11	.05	.02	.18	-.03	3.60	.526	-.13	1.80	

25-29 : 교사의 지지, 30-34 : 친구의 지지, 35-40 : 지역사회의 지지, 41 : 부모의 소득, 42 : 부모의 한국어능력, 43 : 자녀의 성별, 44 : 자녀의 한국어능력, M : 평균, SD : 표준편차, S : 웨도, K : 첨도

2.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분석

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분석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가 없는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성장모형, 일차함수모형, 이차함수모형의 순서로 분석하였고, 비교 기준으로는 χ^2 검증과 적합도지수 RMSEA, TLI, CFI를 사용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변인명	모형	$\chi^2(df)$	RMSEA	TLI	CFI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성장모형	147,580(13)***	.095	.952	.938
	일차함수모형	48,952(10)***	.058	.982	.982
	이차함수모형	25,118(6)***	.053	.991	.985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성장모형	68,216(13)***	.060	.928	.906
	일차함수모형	44,858(10)***	.054	.941	.941
	이차함수모형	29,109(6)***	.057	.935	.961

※ * $p < .05$, ** $p < .01$, *** $p < .001$

적합도 비교 결과,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차함수모형이 가장 잘 설명하였다. RMSEA 값이 .053으로 가장 낮았고 TLI와 CFI 값은 각각 .991과 .98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함수로 일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함수모형의 RMSEA, TLI, CFI 값 또한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Hu & Bentler, 1999), 모두 이차함수모형의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CFI값의 차이가 .01정도로 매우 작은 경우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며(Cheung & Rensvold, 2002), RMSEA 값 또한 .015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모형의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Chen, 2007). 따라서, 적합도가 동일한 경우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다는 일반적인 분석 과정에 따라 일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최근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차함수모형으로 변화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궁금함이나 기쁨 등으로 낮아진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높아진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여 초기에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형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추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난 바 있다(Ying, 2005).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결과, 일차함수모형의 RMSEA 값이 .054로 가장 낮았고, TLI 값이 .941로 가장 높았다. CFI 값은 이차함수모형에서 .961로 가장 높았으나, 세 개의 적합도 지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차함수모형이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그래프는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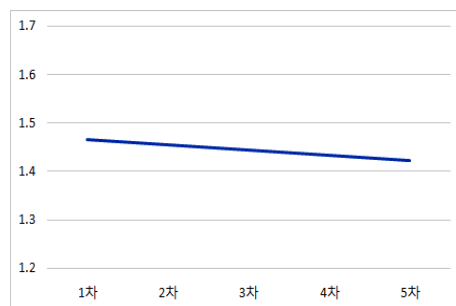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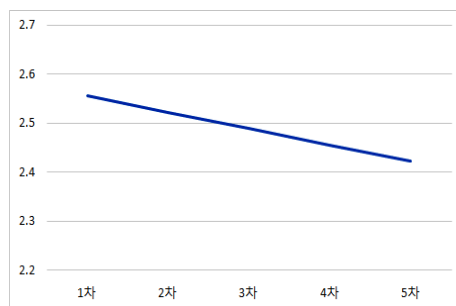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 그림 2.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

일차함수모형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표 3과 같다. 먼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평균이 각각 2.555와 -.033으로 그림 1과 같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띠었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다는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투입하여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다. 평균은 1.466과 -.011로 부모에 비하여 그 값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그림 2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및 일차변화율의 분산 또한 유의하였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를 투입할 수 있다.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변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평균	2.555*** (.019)
		분산	.274*** (.019)
	일차변화율	평균	-.033*** (.005)
		분산	.009*** (.002)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평균	1.466*** (.009)
		분산	.042*** (.005)
	일차변화율	평균	-.011*** (.003)
		분산	.001* (.001)

※ * $p < .05$, ** $p < .01$, *** $p < .001$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은 표 4와 같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의 감소 폭이 컸다.

표 4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

변수	공분산	(표준오차)	상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006	(.004)	-.123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004**	(.001)	-.496

※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 분석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이차함수모형에서 RMSEA 값이 가장 낮았고, TLI와 CFI 값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 또한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Hu & Bentler, 1999), 적합도가 거의 동일한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일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일차함수모형과 이차함수모형의 RMSEA, CFI값이 각각 .015와 .010이상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모형의 간명성에도 불구하고 이차함수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모형에 이차함수모형을 포함할 경우 이차항에서 음분산이 발생하였다. 일차함수모형 또한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Hu & Bentler, 1999) 일차함수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 5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변인명	모형	$\chi^2(df)$	RMSEA	TLI	CFI
부모의 자아존중감	무성장모형	102.048(13)***	.076	.964	.953
	일차함수모형	30.028(10)***	.041	.989	.989
	이차함수모형	11.005(6)	.026	.996	.997
자녀의 자아존중감	무성장모형	251.512(13)***	.124	.863	.821
	일차함수모형	48.164(10)***	.057	.971	.971
	이차함수모형	9.972(6)	.024	.995	.997

※ * $p < .05$, ** $p < .01$, *** $p < .001$

최종적으로 선택된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 그래프는 각각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일차함수모형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

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의 경우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평균이 각각 3.890과 -.020으로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녀의 경우 초기치 평균이 2.920으로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일차변화율의 평균은 .040으로 그림 4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부모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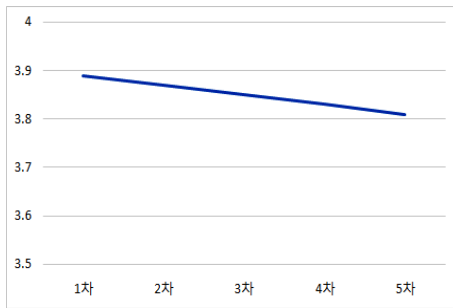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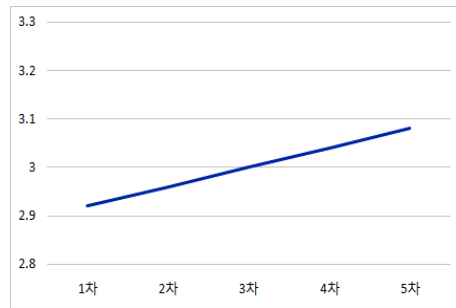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

표 6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변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	평균	3.890*** (.014)
		분산	.153*** (.010)
	일차변화율	평균	-.020*** (.004)
		분산	.005*** (.001)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	평균	2.920*** (.012)
		분산	.098*** (.008)
	일차변화율	평균	.040*** (.004)
		분산	.006*** (.001)

※ * $p < .05$, ** $p < .01$, *** $p < .001$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은 표 7과 같다.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았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컸다. 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증가의 폭이 적었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Bray, Adams, Getz & McQueen, 2003),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표 7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

변수	공분산	(표준오차)	상관
부모의 자아존중감	-.010 ^{***}	(.002)	-.354
자녀의 자아존중감	-.009 ^{***}	(.002)	-.371

※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 모형 분석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일차함수모형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경로를 추가하여 최종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자료 상 자녀의 응답만 존재하여 사회적 지지의 경로는 자녀에 한해서만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시각적 간명성을 위하여 통제변수,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및 오차항은 그림에서 제외했다. 표 8에 나타나듯,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RMSEA가 .035, TLI가 .925, CFI가 .933으로 적합하였다(Browne & Cudeck, 1993).

표 8

연구 모형의 적합도

$\chi^2(df)$	RMSEA	TLI	CFI
2067.457(831) ^{***}	.035	.925	.933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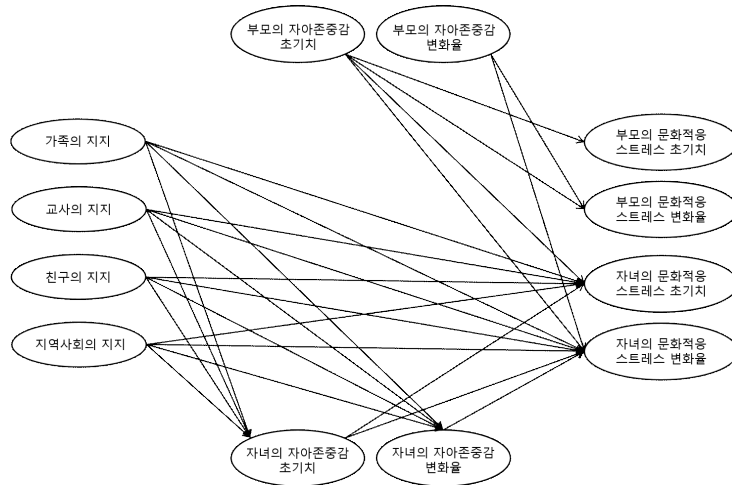


그림 5. 연구 모형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APIM 분석

APIM은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Cook & Kenny, 2005). 행위자 효과는 자신에 대한 효과를, 상대자 효과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한다. 부모의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 추정치는 표 9와 같으며, 자녀의 효과는 표 10과 같다. 표준화 계수는 어머니와 자녀 전체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Kenny, Kashy & Cook, 2006).

먼저, 부모의 행위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에서의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로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에서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이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이 낮아짐을 뜻한다. 즉, 자아존중감의 감소폭이 작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권복순, 2009)을 시사한다.

부모의 상대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 자아존중감 초

기치가 자녀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는 음수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이 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수가 정적이었다는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감소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는 자칫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아졌음을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낮은 자녀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는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던 자녀들은 이에 비해 감소할 수 있는 폭이 크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Bray et al., 2003), 상대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폭이 작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해석될 수 없다.

표 9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경로의 모수 추정치 (부모)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511***	(.064)	-.404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39	(.021)	-.030
부모의 자아존중감 S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994***	(.188)	-.790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104***	(.027)	-.103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0*	(.009)	.019
부모의 자아존중감 S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53)	.002

※ * $p < .05$, ** $p < .01$, *** $p < .001$, I : 초기치, S : 일차변화율

다음으로, 자녀의 행위자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이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빠르게 증가하는 자녀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빨리 감소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감소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이수연, 2009),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

들의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경로의 모수 추정치 (자녀)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자녀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84	(.099)	-.049
자녀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51	(.040)	.037
자녀의 자아존중감 S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384***	(.061)	-.299

※ * $p < .05$, ** $p < .01$, *** $p < .001$, I : 초기치, S : 일차변화율

2)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이어서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계수의 유의성은 BC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 및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는 개별 경로의 모수 추정치를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만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C 95% 신뢰구간이 (.013, .038)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친구의 지지에서의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친구의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를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는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림 6에서 보이듯, 친구의 지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율로 향하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앞선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Bray et al., 2003), 친구의 지지가 높은 자녀들일수록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아,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폭이 적은 것이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의 경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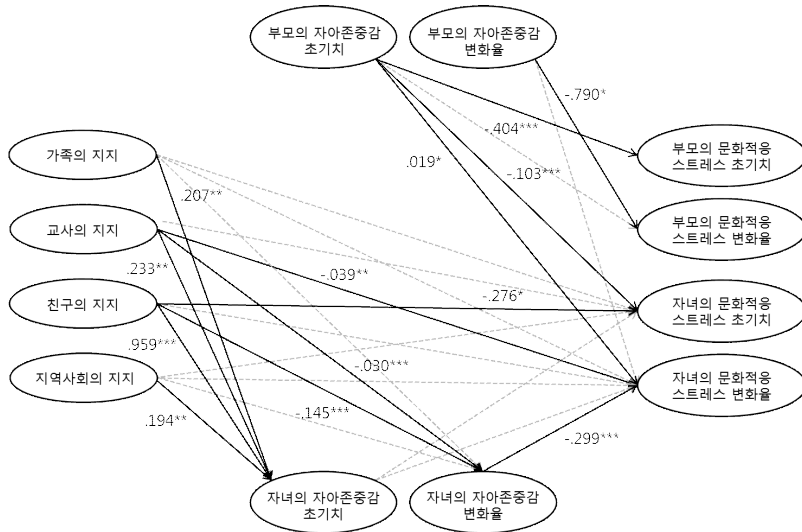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 변화율이 높은 자녀들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주류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조력자가 필요함을 시사하며(Choi, 2001),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표 11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BC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족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08	-.032	.006
교사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09	-.034	.005
친구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36	-.125	.033
지역사회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07	-.031	.005
가족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1	.013
교사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1	.014
친구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2	-.012	.053
지역사회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4	-.001	.013
가족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3	.013
교사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4	.013
또래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6***	.013	.038
지역사회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7	.000	.015

※ * $p < .05$, ** $p < .01$, *** $p < .001$, I : 초기치, S : 일차변화율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6. 연구 결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의 1차년도(2011년)부터 5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부모는 점차 감소하였고 자녀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것(송수지 외, 2012; 정익중, 2007)과 상반된다.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지지를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지지의 여부가 부모와 자녀 자아존중감 양상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연구에 의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의 변수 제한으로 인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패널 자료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에서 측정한 문항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까지 포함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다. 행위자 효과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상대자 효과 분석 결과,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는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크며(김상용, 2010; 박애선, 2013), 자녀의 문화적응을 위해 부모의 정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친구의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적응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 대상이 된 자녀들은 학령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이현송, 2008). 본 연구결과에서도 친구의 지지만이 유의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적용하여, 변수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방안 마련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현경, 이승연 (2010). 만 4, 5세 유아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분석. **육아지원연구**, 5(1), 27-50.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민경, 김경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상용 (2009)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웰빙 연구: 가족응집력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박애선 (2013).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41, 143-165.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 심미영, 정승현, 황순금 (2013). 청소년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99-122.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 45-62.
- 인효연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 정성진, 김진숙 (201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77-102.
- 정옥희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23-37.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지민 (2015).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3), 97-115.
- 최효식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학교급, 성별,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2), 195-217.
- 행정자치부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서울: 행정자치부.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Adams, D. M., Overholser, J. C., & Lehnert, K. L. (1994).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4), 498-507.
- Baldwin, S. A., & Hoffmann, J. P.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2), 101-11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P.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y, J. H., Adams, G. J., Getz, J. G., & McQueen, A. (2003). Individuation, peers, and adolescent alcohol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553-56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54*, 136-162.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155-175.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hoi, T. I. (2001). *Th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ihl, L. M., Vicary, J. R., & Deike, R. C. (1997).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esteem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and 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mong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4), 393-411.
- Efron, B., & Tibshirani, R. J. (1994). *An Introduction to the Bootstrap*. London: CRC Press.
-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Vol. 7).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Greene, M. L., & Way, N. (2005). Self-esteem trajectori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patterns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51-178.
- Hovey, J. D., & Magaña, C. G. (2002). Exploring the mental health of Mexican

- migrant farm workers in the Midwest: Psychosoci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5), 493-51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yun, K. J., & Kim, Y. S. (2012).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4), 653-677.
- Kenny, D. A., & Cook, W.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4), 433-448.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Orth, U., Trzesniewski, K. H., & Robins, R. W. (2010).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645-658.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Preacher, K. J., Wichman, A. L., MacCallum, R. C., & Briggs, N. E. (2008).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Development of the Self, 205-24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rtakovsky, E.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sickness: High-school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and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6), 485-494.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 123-143.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 Ying, Y. W.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1), 59-71.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a latent growth model

Bong, Chowoon* · Jeong, Yoonhwa* · Hong, Se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The sample subjects comprised 1,192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changes in acculturative stress of both parents and children decreased over time. Self-esteem amongst parents gradually decreased, while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creased. Parental self-esteem and childre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cculturative stress. The self-esteem of parents influenced their children's acculturative stress. Support provided by friends lowered the acculturative stress of children, which was in turn, mediated by self-esteem.

Key Words: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latent growth model (lg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투고일: 2018. 3. 12, 심사일: 2018. 6. 11, 심사완료일: 2018. 6. 25

*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major, Korea University

** Professor,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major,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eeehong@korea.ac.kr